

# 류현진, 토론토와 4년 총액 8000만달러 계약

2002년 박찬호 뛰어넘은  
한국 투수 역대 최고액  
토론토, 최근 우완 영입  
내셔널→아메리칸리그  
새로운 환경서 적응해야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니폼을 입는다. ESPN 등 외신은 23일(한국시간) “류현진이 토론토와 4년 총액 8000만달러(약 929억7600만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USA 투데이의 밥 나이트가 기자는 개인 SNS를 통해 “트레이드 거부권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류현진의 계약은 코리아 메이저리거 투수 중 역대 최고액이다. 2002년 박찬호가 텍사스 레인저스와 맺은 5년 총액 6500만달러를 계약 총액과 평균 연봉에서 모두 뛰어 넘었다. 야수를 포함해도 2013년 추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와 맺었던 7년 총액 1억3000만달러에 이어 2위다. 계약 총액이 1억달러에 미치지 못했지만 연봉 기준으로 월드시리즈 MVP 경력의 매디슨 범가너(애리조나 5년 총액 8500만달러)를 넘어섰다. 류현진은 2019시즌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르며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에 올르는 등 맹활약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으로 떠오른 류현진은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여러 팀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메이저리그 6~7개 팀이 류현진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쏟아졌다. 결국 류현진 영입전의 승자는 토론토가 됐다. 토론토는 최근 류현진에게 경쟁력 있는 제안을 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유력한 행선지로 급부상했다. 토론토는 이번 겨울 테너 로약, 채이스 앤더슨, 야마구치 등의 투수를 영입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오른손 투수였고 확실한 에이스 카드로 보기는 어려웠다. 2013년 LA 다저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류현진은 빅리그에서 6시즌을 뛰며 54승33패 평균자책점 2.98의 성적을 남겼다. 적지 않은 나이와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류현진은 2018년 7승3패 평균자책점 1.97, 2019시즌 14승5패 평균자책점 2.32로 맹활약하며 건강함과 실력을 증명해냈다. 내셔널리그에서 아메리칸 리그로 향하게 된 류현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그동안 류현진은 아메리칸리그 팀들과 15경기에 등판해 4승4패 평균자책점 3.84를 기록했다. 토론토가 속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명문구단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탬파베이 레이스, 볼티모어 오리올스 등이 속해있다. 뉴스1



‘한파’ 프로야구 FA시장  
미계약 14명 해 넘길 전망  
한파 이어져...이적 0명 가능성도

프로야구 FA시장은 연말에도 잠잠하다. 아직 미계약 상태인 14명 대부분 해를 넘길 전망이다. 2020시즌 FA 자격을 행사한 19명의 선수 중 23일 현재 5명만 계약에 이르렀다. 포수 이지영이 키움 히어로즈와 3년간 18억 원에 재계약을 맺었고 외야수 유한준이 KT 위즈와 2년간 20억원, 투수 정우람이 한화 이글스와 4년간 40억 원에 재계약했다. 투수 송은범이 LG 트윈스와 2년간 10억원, 내야수 오지환도 LG와 4년간 40억 원에 계약했다. 단 한 명의 이적 없이 모두 원소속팀 진료를 택했다. 시장에는 14명의 FA 대상자들이 남아있다. 전준우(롯데), 안치홍, 김선빈(이상 KIA)과 같은 준축급은 물론 고효준(롯데), 진해수(LG), 김강민(SK) 등 베테랑 자원들도 아직 행선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FA 시장에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냉랭한 흐름은 연말에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구단은 한해 업무를 마친 상태로 구체적인 협상에 나설 분위기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14명 모두 해가 넘어야 할 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 전망이다. 그마저도 준축급 이상으로 평가 받는 자원은 구단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만 베테랑 선수들은 계약상사 여부조차 장담하기 힘들다. 스프링캠프 출발이 대부분 2월 1일 전후로 예정됐기에 양 측 모두 1차적으로는 이시기 전에 협상타결을 목표로 한다. FA 이적 케이스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양의지(NC)의 사례에서 보듯 해마다 대어급 선수 중 1명 이상의 이적생이 나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시장의 박한 평가 속에서 이적 선수가 1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준축급 이상 선수들의 이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그중 지환이 진료를 택했고 김선빈, 안치홍, 전준우에게는 이렇다할 외부 움직임이 없다. 한 구단관계자는 “1월 초까지는 눈치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라며 “계약소식은 아주 간간히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 ‘70m 드리블 원더골부터 퇴장까지’ 손흥민의 2019년...10골 9도움

첼시전 퇴장 3G 정치 받을 듯  
5월·11월 이어 레드카드

올 시즌 ‘슬로스타터’ 이미지를 완전히 털어낸 ‘손샤인’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이 아쉬움 속에 2019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23일 오전 1시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의 2019-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0-2로 뒤진 후반 17분 첼시의 안토니오 루디거에게 보복성 과몰을 범해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다. 손흥민은 오는 26일 브라이튼과의 EPL 19라운드에 나설 수 없다.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보복성 태클에 이

은 다이렉트 퇴장은 3경기 출장 정지에 해당된다. 이에 토트넘은 손흥민의 추가 징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토트넘으로선 시즌 중 가장 뼈아픈 일정이 몰린 ‘박싱데이’를 에이스 없이 치르게 됐다. 팀으로서도, 손흥민으로서도 모두 아쉬운 한순간의 반칙이었다. 손흥민 개인에겐 영광과 좌절을 모두 겪은 2019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무대 진출 후 후사 논란도 마다한 채 토트넘과 대표팀을 바빠 오갔다. 그러면서도 페이스는 올 시즌이 가장 좋았다. EPL 15경기 5골 7도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6경기 5골 2도움 등 10골 9도움을 기록, 아직 시즌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커리어하이(2017-18, 2018-19 각각 공격포인트 29개)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변수는 퇴장이었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무대 진출 뒤 총 세 번의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다. 지난 5월 본머스와의 2018-19 EPL 3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첫 퇴장을 받아 올 시즌 개막전과 2라운드에 나서지 못했고, 지난달 4일 에버턴과의 2019-20 EPL 11라운드에서 안드레 고메즈에게 태클을 하다 두 번째 레드카드를 받았다. 다행히 두 번째 레드카드 당시엔 토트넘 구단의 황소가 받아들여져 3경기 출장 정지 징계는 철회됐지만, 이번 레드카드는 그럴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옵타’는 “손흥민이 올 해에만 3번의 레드카드를 받았다. 지난 2010년 리 커틀몰(선덜랜드) 이후 10년 만에 나온 최악의 기록”이라고 혹평했다. 이날 퇴장과 추가 징계가 손흥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손흥민은 지난 8일 번리전에서 70여m를 12초만에 주파하며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원더골’을 기록한 바 있다. 기세를 이어 바이에른 뮌헨과의 UCL 조별리그 최종전, 올버햄튼과 첼시전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 지쳐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조제 모리뉴 감독 부임 이후 손흥민은 불박이 왼쪽 윙어로 EPL 매 경기 선발 출전해 공수를 오가며 뛰고 있다. 특히 서지 오리에의 오른쪽 측면을 활용한 ‘비대칭 전술’을 쓰는 모리뉴 감독 체제에서 손흥민의 수비 부담 능력은 더욱 중요해졌고, 최근 경기에선 후반 막판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그렇기에 이번 퇴장과 휴식 기간이 손흥민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